국내 방역의 의의와 코로나에 의한 나 자신에 대한 고찰

K방역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K 방역은 Drive through 검사와 같은 혁신적인 방법의 도입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로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방역에 구멍이 많이 생기며 계속하여 세 자리의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 K 방역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거리두기였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져 실현이 가능했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나는 약간 시각이 다르다. 우리가 굉장히 지저분한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상황을 목격했다 치자. 물론 처음에 한 명이 할 때는 큰 관심이 없이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3~4인 이상의 사람이 같이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군중 심리가 발현되어 같이 치우게 된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그 행동이 선행이기 때문’이 아닌 단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역사에 남는 민주주의적 사건 중 하나인 촛불 집회에서도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질서를 지키는 풍경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즉 야당에서 구역마다 사람을 배치하여 먼저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여 다같이 청소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대외적으로 홍보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정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먼저 정책을 잘 지킬 만한 사람들이 먼저 실천하여 군중 심리를 통해 대중을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의 시민의식보다는 약간의 눈치 보는 문화가 사회에 전반적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방역 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은 사실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너무 강했다. 혹자는 괜히 외국인 출입 제한 및 출국 제한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막는다면 정치적으로도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좋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국내의 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의견은 약간 다르다. 국경 봉쇄는 필요했다. 당시 많은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들어왔다. 그 과정에서 특히 낮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무증상 감염자인 상태에서 입국하거나, 해열제를 먹고 강제로 발열을 멈춰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당시 초기에 제주도에 모녀가 방문하여 코로나가 퍼지는 사건도 있었으며 그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로 입국한 사람들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된 양이 많다. 따라서 아무리 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경 통제를 먼저 하고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먼저 된 후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맞았을 수 있을 것 같다. 외교 정책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실 말이 안되는 정책이었다. 코로나 초기에 이미 비말이 마트 칸막이정도는 충분히 넘어서 퍼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서는 아무리 칸막이를 쳐도 거의 다 확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수능 칸막이와 음식점 칸막이는 많은 사실상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지인이 이웃해서 테이블에 앉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모르는 사람과 옆 테이블에 앉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전혀 말이 안되는 얘기이다. 아무리 서로 간에 대화를 하지 않는다 해도 앞서 말한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비말은 생각보다 멀리 날아간다. 차라리 거리두기보다는 3주에서 4주정도의 봉쇄령을 통해 완전한 코로나의 통제를 진행한 다음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받아 일정 공간에 일정 기간동안 격리시켜 놓았다면 지금보다 효과적인 방역 정책이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게 집에 거의 고립되어 살게 된 채로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했고 대학교 1학년까지도 학교에 등교하지는 못한 채로 살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오히려 학교 공부 이외의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우선 집에 있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 내 방이 작업실이었기에 평균 1일 작업시간이 늘어났다. 다시 말하면 학교 공부를 하는 시간은 오히려 1, 2학년 때보다 줄었다는 것이다. 대신에 2학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스마트팜 연구는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3차 연구를 진행했다. 모든 프로토콜을 수정하고 스마트팜 내부 구조를 변경하였으며 서버도 개선했다. 그러고 나서 관련 특허도 출원할 수 있었다. 또한 그것 말고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창업 대회에도 참여했었다.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꽤나 좋은 인연이 생기기도 했던 것 같다. 어찌 보면 절대 대면의 상황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인 것이다. 만약 학교를 다녔다면 외부 활동은 작년에 내가 한 것의 절반도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충 입시를 마무리하고 어쩌다 보니 중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만족스러운 입시 결과였고 공부 양 대비 충분히 훌륭한 결과였다. 그랬기에 재수나 반수를 선택하기 보다는 개인 프로젝트의 진행을 선택했다. 스마트팜 회로 안정화화 함께 키보드 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정보 수집이 시작되었고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중앙대학교에 진학한 동기들과 온라인으로 먼저 만날 수 있었으며 상당히 잘 놀았던 것 같다. 그리고 대학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덕분에 “알바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현재 재직중인 연구소에 정직원으로 취업하게 되었다. 결국 어쩌다 보니 반 취미로 일을 하던 내가 갑자기 현업에 바로 투입된 상태가 되었다. 항상 사실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해왔다. 수험생 때 특히 냇물 지나가는 것을 보며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최근에 내가 하는 일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다시 하게 되는 것 같다. 고등학생때는 ‘나는 누구인가, 누가 될 것인가, 어떤 가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면 지금도 개발자 앞으로도 개발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당시에 하던 일이 생각보다 외진 분야의 스마트팜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술의 지원을 받지 못한 분야에 대한 기술 도입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삶을 개선하고 싶었다. 그것들 중 가장 큰 것이 모션 인식 프로젝트와 현재 진행중인 키보드이다. 지금은 하나의 개발자이지만 결국은 예술가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학자라는 사람은 예술가의 정신을 가지고 과학적 원리를 통해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디자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때 그 근본에는 예술가의 정신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신념과 사회의 모멘텀을 만드는 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나의 꿈이 추가된 것 같다. 연구소에 들어간 이후로 한 번은 전세계가 쓰는 기술을 만들어보고 싶다. 정확히는 그 디자인을 하고 싶다. 여름방학부터는 그 꿈을 향해 다가가보려 한다. 그 꿈을 통해 결국 예술가에 가까워진다면 나의 자아실현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싶다.